

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 
글로 전하는 마음♡

# 잡-민 일보(一步)

자스민, 한 걸음 나아감

더 깊은 글은 "밑줄 클릭" 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.

구독을 원하시면 [여기](#)를 클릭하여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!

## 아직은 딸의 삶이 전부라

엄마 사랑 방식은 내게 "희생"이라는 단어로 재 해석 될 뿐이라, 32년 봐 온 엄마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. 아직 딸의 인생이 전부인 나는, 그런 엄마의 사랑이 내게 지극한 힘이라는 건 압니다.

"좋아요" 와 "구독" 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.

## 현실 자각 타임 : 어디로 가야하나

곧 전세 계약 만료다. 이번엔 뜰 것을 다짐한다. 살며 이곳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. 습하지 않아 곰팡이와 먼 곳으로 가고 싶다. 허나 문제는 돈이다.

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-다.

## 두 번째 책

# <32년째 엄마 사랑해>

필승! 출간을 알립니다!

새벽부터 엄마에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.

"큰 딸. 고맙고 장하다."

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의 딸이 되었고 그녀는 나를 낳자마자 엄마가 된 것처럼 우리는 "모녀"의 인연만 가져갑니다.

그래서 행복합니다.  
나는 우리 엄마의 소중한 딸이니깐요.

거침없이 클릭



자매품  
<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삶, 자존>



## 책 편집을 도와드렸습니다.

"감사 나눔"이라는 주제로 쓴 김남용 전문 상담가의 첫 책 편집 작업을 도와 드렸습니다.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작업으로 피로한 날도 많았지만 행복했던 건 감사 덕분이었습니다.

## 연재 완료작(作) 코너

### <소개팅, 이번엔 다르겠지만을 기다리는 일>

길을 걷다 남녀 한 쌍을 보게 된다. 누가 봐도 소개팅각이었는데, 둘, 한 번은 더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싸늘한 공기가 나를 스친다. 아무렴, 소개팅이 쉬운 일은 아니지.

나에게도 비공식 소개팅 한 번과 공식 소개팅 두 번의 경험이 있다. (계속..)

잡-민 일보(자스민, 한 걸음 나아감)를 개간하였습니다. 무엇을 실을 지는 정해두지 않았습니 다. 다양한 소식을 실을 예정이라, 나도 그 어디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거든요! 당신의 이 야기가 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.

자스민의 다양한 활동은  
<https://brunch.co.kr/@supereunkyung>  
기타 다양한 제안은  
[bestjasmineever@naver.com](mailto:bestjasmineever@naver.com)